

## 미래 농업을 향한 발돋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기고문 | 2025-03-18



## 미래 농업을 향한 발돋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 김철상(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장)  
© 남도매일

최근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귀농, 귀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업과 농촌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년 귀농·귀촌 실태조사'에 따르면 30대 이하 청년층의 귀농 이유는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이 30.5%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스마트 기술의 도입으로 농업 효율성이 향상되면서 안정적인 식량 공급이 이루어지고 국제적으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농업과 농촌에 대한 기대감도 상승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농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경제 침체 등으로 농촌 소멸에 대한 위기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전망 2025'에 따르면 2024년 약 204만 명이었던 농가 인구는 2025년에 약 2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이며, 총인구 중 농가 인구 비율은 4%에서 3%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고령화되는 농가와 농촌 소멸 위기를 해결하고 더불어 청년 농업인의 농촌 유입과 정착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는 2024년부터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농업인에게 이양받은 농지를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 임대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미래 농업 준비를 위해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동시에 고령 농업인에게는 농업 은퇴 후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매월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만 65세 이상 만 84세 이하의 농업인이면서, 농업 진흥지역의 농지나 농업 비진흥지역의 경지정리 된 농지를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기존의 경영이양직불사업을 확대 개편한 사업으로, 농지이양에 따른 지원 혜택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 번째는 고령 농업인이 더 여유로운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 금액이 대폭 상향되었다는 점이다. 농지를 매도해 농지를 이양하는 경우 ha당 기존 월 27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된 금액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매도 조건부 임대로 농지를 이양하는 경우 ha당 기존 월 21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된 금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장점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가입 가능 연령이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65~74세 농업인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반면, 가입 대상이 65~84세로 확대되어 연령에 따라 최대 10년간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농촌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은퇴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고 청년 농업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농업경영의 세대 전환을 촉진하여 미래 농업을 향해 발돋움할 것이다.

은퇴를 고민하는 고령 농업인이라면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기를 추천한다. 청년이 돌아오는 활기찬 농촌, 안정된 노후가 있는 농촌, 단순한 먹거리 생산뿐만 아니라 농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여 더불어 잘사는 농촌을 만들어가는 길에 농지은행이 든든한 지킴이로서 농업·농촌과 함께할 것이다.

김철상(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장)

기고문

기고문의 다른기사보기



뒤로가기    홈으로

포토뉴스